

넘쳐나는 ‘하수슬러지’ 해결책은…

도, 발생량 절반 이상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
민간업체도 처리용량 포화… 악취민원도 유발
3600t 제주밖 반출 결정… ‘땀질처리’ 불신 자초

제주자치도가 하수슬러지(찌꺼기) 처리 대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처리용량을 넘어선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도외반출이라는 땀질식 대책만 내놓고 있어 무능력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하수처리장 내 제주도내 광역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원화공장을 마련했다. 1일 처리용량은 70t이다.
문제는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처리용량을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제주도내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지난달 말 기준 2만5644t으로, 하루 121t이 나오고 있다. 1일 처리용량보다 50여t이 초과되는 셈이다.
이에 제주도는 넘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된 하수슬러지는 1만2077t

(47.0%)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2937t(제주시 5492t, 서귀포시 7445t)은 민간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특히 악취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소재 민간업체가 오는 10월부터 탈취 시설 공사에 들어가면서 처리 계약이 일시 중단된다.
이 업체는 1일 25.9t을 처리하는 등 제주시지역 발생 슬러지의 30%를 처리하던 곳이다.
1일 처리용량 44t 규모의 서귀포 소재 처리업체가 있지만 이미 하루 35t씩 처리하고 있어 여유용량이 없다.
결국 제주도는 처리가 어려워진 하수슬러지를 도외 반출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에 제주시지역 하수슬러지 민간처리 용역을 공고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압축포장폐기물의 도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도외로 반출했다가 해외로 불법 수출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비는 해상운반비가 추가돼 무려 9억3474만원에 이르며, 처리물량도 3600t 규모다. 용역기간은 4개월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달 도외지역 처리업체 시설 5곳의 현장을 확인했다”며 “압축포장폐기물 해외반출 사태와 같은 일이 없도록 협상계약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받는 등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동물테마파크 관련 찬·반측 갈등 최고조

선홍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선홍2리 전·현직 이장들이 제주 동물테마파크 찬성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제주도청, 조천읍사무소 등에 배포하자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는 선홍2리 전·현직 이장들의 성명서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서 서명에 참여한 전직 이장 7명 중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단 3명뿐”이라며 “마을총회로 결정된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부 전직 이장들이야말로 진짜 외부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이장은 주민들 몰래 사업자측과 비밀리에 맺은 협약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주민 2명을 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또 찬성위원회 측도 라디오 방송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 주민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주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비밀 협약서를 체결하고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주민을 고소하는 이장의 행태를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선홍2리 주민들은 마을이장의 잘못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독자제보 750-2232



여름 끝물 즐기… 한림 월령리 해안 탐방로 전경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22일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해안 탐방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자연을 한껏 느끼며 걸어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이런 날벼락이… 70대 노부부 음주차량에 참변

50대 무면허 만취운전
인도 돌진해 3명 사상

지인들 “감귤장사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애통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에서 70대 노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쯤 중문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51)씨가 몰던 화물트럭이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하며 김모

(75)씨 부부 등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김씨 부부가 숨지고 함께 있던 김모(53·여)씨도 크게 다쳐 도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숨진 김씨 부부는 중문색달 해수욕장에서 10여년간 관광객 등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이어왔으며, 사고 당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해수욕장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리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욕장 주변 상인들은 김씨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소식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주변 상인은 “평소 김씨 부부는 사람이 좋았고 누구보다 일찍 일터에 나와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해수욕장 근처에서 장사하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화물차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윤기자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23일 금요일 음 7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구름 많음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 많음	23/29℃
모레	☀ 구름 많음	24/28℃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제주도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5℃, 낮 최고기온은 28~29℃로 예상된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 해돋이 06:01	☀ 달뜨기 23:38
☀ 해짐 19:12	☀ 달짐 12:41
☀ 물때 만조 02:45	☀ 간조 09:52
☀ 16:11	☀ 22:24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경고	매우 높음

제주 학교 미래형으로 재구조화

교육청 17개 초등학교 대상
공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1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확립화된 학교 시설을 미래형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공간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교육청은 22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학교 관계자와 건축 전문가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공간혁신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확립화된 학교 시설을 4차 산업 혁명 등 미래 교육 변화에 맞는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21억원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공간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2020년 25개교에 30억원, 2021년 30개교에 35억원, 2022년 30개교에 35억원, 2023년 30개교에 35억원, 5개년간 132개교에 154억49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태은 교육부 정책보좌관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간이 새로워

져야 공간이 삶을 바꾸고 삶이 공간을 다시 바꾸는 선순환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고 학교공간혁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설명회에서는 교육부 학교공간혁신 총괄·실행 기획자인 고인룡 공주대학교 교수가 ‘공간이 교육을 만든다’를 주제로 기초강연했다. 이어 오세정 광주 수완고 교사가 ‘교육과정 속 공간 혁신’에 대해 주요 사례를 발표했으며, 박석균 경기도 시흥 장곡중학교 교장이 장곡중 사례를 들어 학교 공간 혁신의 당위성을 공유했다.

표성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한국해운조합 제16대 회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고 성 원

한국해운조합 제16대 회장

600여 조합원과 함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전경탁

제주시지부 지부장 전경탁 서귀포지부 지부장 양은주 성 산 지 부 지부장 김철남 한 림 지 부 지부장 이태석
안 덕 지 부 지부장 정용철 애 월 지 부 지부장 고현배 추 차 분 회 분회장 박종빈

